

역관들의 시를 청나라에 소개한 《해객시초》

하버드대 엔칭도서관의 고서들 — 14

허경진 | 연세대 국문과 교수

유 금이 엮은 《한객건연집》이 청나라 문인들의 평을 받은 뒤에 조선의 대표적인 시선집으로 널리 소개되자, 후배 시인들이 역시 자신들의 시를 청나라에 소개하기 위해 《해객시초》라는 시선집을 엮었다. 이서구를 제외한 《한객건연집》의 시인들이 모두 서얼인 데 비해서, 이 책에 실린 시인들은 모두 역관이다. 이 책은 19세기 말 위향시인들의 연구와 조청 문학교류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조선 후기에는 청나라에 드나드는 사신이나 수행원들에 의해서 청나라 문단과 교류가 많았다. 연암 박지원과 윤가진(尹嘉鎔)·왕민호(王民皞)의 교류를 비롯해서, 담원 홍대용과 엄성(嚴誠)·반정균(潘庭筠)·육비(陸飛)의 교류, 조청 박제가와 이조원(李調元)의 교류, 추사 김정희와 옹방강(翁方綱)의 교류에 이르기까지, 이런 교류는 백년이나 계속됐다. 북학파의 후예들과 추사의 문생들에 의해서 19세기 후반까지 적극적인 교류가 이어진 것이다.

18세기 후반에 박자를 따르면서 새로운 한시를 지었던 이덕무·유득공·박제가·이서구를 우리 문학사에서는 후사가(後四家)라고 하는데, 이들이 지은 한시는 1776년에 유 금(柳琴)을 통해서 북경에 소개됐다. 유득공의 숙부인 유 금이 조카 유득공과 그의 친구들인 20대 젊은 시인들의 시를 모아 《한객건연집(韓客巾衍集)》이라는 이름으로 엮어냈다. 그러다가 진하사(進賀使)의 수행원으로 청나라에 가게 되자, 청나라 문인의 평을 얻기 위해서 이 책을 갖고 간 것이다. 청나라 문인 이조원과 반정균이 이들의 시를 읽고 비평했으며, 서문에서 이들을 사가(四家)라고 불렀다. 이조원과 반정균의 서문과 평어가 덧붙은 《한객건연집》은 조선과 청나라에 널리 퍼졌으며, 당대 조선의 시수준을 중국에 알려주는 지침서가 됐다.

《한객건연집》을 본받아 엮어 북경에 보내다

《한객건연집》이 청나라 문인의 평을 받은 뒤에 조선의 대표적인 시선집으로 널리 소개되자, 후배 시인들이 역시 자신들의 시를 청나라에 소개하기 위해 《해객시초(海客詩鈔)》라는 시선집을 엮었다. 이서구를 제외한 《한객건연집》의 시인들이 모두 서얼인 데 비해서, 이 책에

실린 시인들은 모두 역관(譯官)이다. 조선시대의 좋은 벼슬을 양반 집안의 적자들이 독점하다가, 1777년에 〈정유절목(丁酉節目)〉을 정해 이덕무·유득공·박제가 등의 서얼들을 5품 검서관(檢書官)에 임명했다. 《한객건연집》은 그런 배경에서 엮인 것이기도 하다.

1851년에 드디어 서얼도 청환(淸宦)에 등용한다는 조치가 내려지자, 역관을 비롯한 중인들도 4월 25일 통례원에 모여 통문을 만들고, 1,872명의 이름으로 상소문을 지었다. 윤8월 18일에 철종이 경릉에 행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행차길에서 상소문을 올리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통청운동(通淸運動)은 실패했다. 고관대작의 자제들이 중심이 돼 추진했던 서얼들의 통청운동은 성공했지만, 힘없는 기술직 중인들의 통청운동은 목살됐던 것이다. 역관시인들의 시선집 《해객시초》는 이런 연장선상에서 편집했는데, 이 책이 《한객건연집》보다 거의 백년 뒤에 엮인 것은 이들의 문학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역량의 차이도 보여준다.

청나라에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많은 문인들과 교류했던 시인은 추사의 제자인 이상적(李尙迪, 1803~1865)인데, 중국어에 능통한 그는 열두 번이나 청나라에 드나들면서 많은 시를 지었고, 그의 작품이 그곳 문인들에게 인정받아 간행됐다. 그에게서 시를 배운 제자들이 바로 이용숙·강해수·김석준·변원규·최성학 등인데, 모두 역관이다. 김석준(金奭準, 1831~1915)은 시를 지을 때마다 스승 이상적에게 보여줘, 그가 고쳐준 뒤에야 발표했다고 한다. 그는 이상적의 대표작을 모아 《우선정화록(藕船精華錄)》을 간행할 정도로 스승을 흠모했다. 이 기(李琦)가 엮은 《조야시선(朝野詩選)》 ‘김병선(金秉善)’ 조에 보면 〈늦가을에 황계(강해수)·소당(김석준)·연농(최성학)과 밤에 술을 마시며, 우선(藕船) 스승의 시에서 운(韻)을 골라 시를 짓다〉는 제목의 시가 있으니, 스승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들의 모임이 계속됐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나이 어린 최성학이 1868년에 이 책을 엮고 머리말을 썼는데, 그는 이때 27세였다. 《한객건연집》에 실렸던 시인들의 나이와 같은 셈이다. 이 책은 원래 한 시인을 1권으로 총 6권으로 편집했는데, 지금 엔칭도서관에는 4권 2책만 남아 있다. 2권은 아마도 필사과정에서 빠진 듯하다. 다행히도 2책 첫장에 목록이 실려 있어, 이들의 이름과

실린 분량을 알 수 있다. 각 권마다 첫장에 시인 소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권1. 이용숙(李容肅). 40수.

자는 경지(敬之)인데 전주 사람이며, 무인년(1818)에 태어났다. 호는 국인(菊人)인데, 저서로는 《낙선방집(樂善坊集)》이 있다.

권2. 강해수(姜海壽). 27수.

자는 중심(仲深)인데 진주 사람이며, 갑신년(1824)에 태어났다. 호는 황계(璜溪)인데, 저서로는 《기당집(寄堂集)》이 있다.

권3. 김병선(金秉善). 32수

자는 이현(彝軒)인데 청양 사람이며, 경인년(1830)에 태어났다. 호는 매은(梅隱)인데, 저서로는 《미묵당집(昧墨堂集)》이 있다.

권4. 김석준(金奭準). 41수

권5. 변원규(卞元圭). 46수

권6. 최성학(崔性學). 49수.

자는 전숙(典叔)인데 계림(경주) 사람이며, 임인년(1842)에 태어났다. 호는 연농(研農)인데, 저서로는 《운향산방집(芸香山房集)》이 있다.

이 가운데 최성학의 시가 가장 많이 실렸는데, 아마도 그가 편집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서문에서 “김소당(金小棠, 김석준)이 동인(同人)들의 시초(詩艸)를 모아 내게 의견을 구했다. 그래서 (같은 종류끼리) 모아 2권으로 만들었다”고 한 것을 보면, 이 책은 원래 김석준이

“이들이 굳이 동문환에게 이 책을 전하려 한 이유는 그가 1862년쯤부터 《한객시록(韓客詩錄)》을 편찬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가 조선의 대표적인 시를 모아 《한객시록》을 편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조선 문인들이 다뤄 그에게 시문집을 보냈다.”

편집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예전부터 이우촌(李雨邨)의 옛일을 흠모했다”고 한 것으로 봐, 유금이 《한객건연집》을 청나라에 갖고 가서 이조원에게 평과 서문 받은 것을 본받아 《해객시초》를 엮은 것도 알 수 있다.

동문환의 후손들이 보관하다 《한객시존》에 실려

이들이 《해객시초》를 엮어 청나라 문인 동문환에게 보낸 것은 오랜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문환(董文煥, 1833~1877)은 호가 연추(研秋) 또는 연초(研樵)인데, 산서성 홍동(洪洞) 출신이다. 1856년 진사에 급제하고 문관 벼슬을 시작했는데, 그는 주로 북경에서 실록 관 찬수·문언각 교리 등의 벼슬을 하며 사행차(使行次) 북경에 온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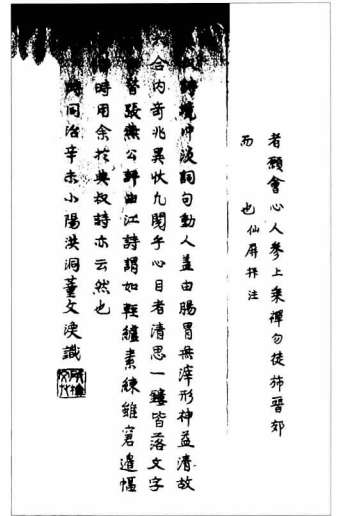
선의 문인들과 두루 사귀었다. 이용숙·김석준·이상적·변원규 등과 몇 차례씩 만남 기록이 그의 일기에 실려 있다. 그가 1867년 8월에 서북 변방의 외직으로 나가면서 조선 문인들과 교류가 잠시 끊어졌는데, 1871년 4월부터 1년간 북경에 머물다가 이용숙을 다시 만났다. 역관 이용숙이 북경에 자문(咨文)을 갖고 오면서, 그에게 《해객시초》를 전해주고 비평을 부탁한 것이다. 이용숙은 1869년에도 이 책을 북경에 갖고 가서 여러 문인들에게 보여줬지만, 동문환의 평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던 듯하다.

이들이 굳이 동문환에게 이 책을 전하려 한 이유는 그가 1862년쯤부터 《한객시록(韓客詩錄)》을 편찬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가 조선의 대표적인 시를 모아 《한객시록》을 편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조선 문인들이 다뤄 그에게 시문집을 보냈다. 1868년에 엮은 책에 1871년 10월에야 서문을 쓰게 된 것은 이런 사연 때문이다.

그는 조선 문인과 청나라 문인 사이에 주고받은 시와 산문들을 두루 모아서 여러 권의 책을 엮었다. 이런 책들은 《해객시초》와 함께 그의 후손들이 보관해왔는데, 최근에 중국 산서대 고전문학연구소 이예(李豫) 교수가 편집하고 발문을 붙여 《한객시존(韓客詩存)》(북경 서목문헌출판사, 1996)이라는 이름으로 간행했다. 이 책은 《해객시초》《한객시존》《한객문존》《연초산방일기(硯樵山房日記)》수고(手稿) 중조선인자료(中朝鮮人資料), 《좌해교유록(左海交遊錄)》《완정복호도집(完貞伏虎圖集)》《죽정선생유사(竹亭先生遺事)》의 7부로 구성돼 있다.

일본인 학자가 필사해 남겨

동문환이 평을 덧붙여 조선으로 돌려보낸 《해객시초》는 국내에 필사본이 남아 있지 않다. 하버드대 엔칭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필사본은 1책 마지막 장에 “소화 8년 7월에 소장본을 필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1933년 7월에 일본인 학자가 필사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이 책은 국내 어느 도서관에도 소장돼 있지 않다. 이 책에 실린 6명은 당대에 이름을 날렸던 위향시인들이지만, 김석준의 《홍약루고(紅藥樓稿)》 외에는 문집이 남아 있지 않다. 이 책을 엮을 당시에 이미 각자의 문집이 있었다고 했지만 지금은 다 없어지고, 《대동시선》 등에 몇 편이 전해질 뿐이다. 그런 점에서도 이 책은 19세기 말 위향시인들의 연구와 조청(朝淸) 문학교류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



《해객시초》 6권 마지막 장. 청나라 문인 동문환이 최성학의 시에 덧붙인 평이다.